

5분의 충격, 지식채널㉺

서울문영여고 3학년 조아라

어렸을 적부터 나는 EBS 교육방송의 프로그램과 함께 자랐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선배들, 동생들까지도 EB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며 자라왔다.

고3이 된 지금은 EBS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다 보니 EBS 시청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나는 단 5분짜리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지식채널㉺>였다.

늦은 밤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은 내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프로그램의 신선함과 그 내용으로 다루는 번뜩이는 지식.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락프로도 아닌 방송이 나에게 큰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꾸준한 시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2005년 9월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지식채널㉺>는 2007년 4월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문화 및 과학에까지 다방면에 두루 걸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면의 지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새로운 영상 구성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한다. 그 동안 <지식채널㉠>에서 다루어온 주제들을 살펴보면 개미나 비타민, 머리카락과 같은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과, 집단 떠돌림 현상이나 철거민 문제 등 사회적 지식 그리고 문화적 지식을 주로 다루어왔다. 영상 부분을 살펴보면 한결같은 메인 로고 ‘㉠’를 사용했고 매번 다양한 음악을 삽입하는 등 미니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메인 로고 ‘㉠’를 sosi㉠ty, knowl㉠dge 등 카테고리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은 시청자가 제작진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탐구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를 응용한 로고를 띄우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너무 똑같은 로고들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참신한 느낌이 맨 처음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르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용 속의 핵심적인 부분들, 혹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응용하여 로고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들면 더 좋을 듯했다. ‘2006, 낭만고양㉠’라는 동영상에서는 로고가 musicvid㉠o라고 나온다. 그것은 내가 작년에 본 영상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던 로고였다. 당연히 참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고를 좀 더 다양하고 참신하게 띄운다면 각각의 로고들을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작진은 최근 로고를 새롭게 응용하여 만들기 시작했다. 방영된 지 가장 최근인 영상에는 r㉠lation이라는 새로운 로고를 띄웠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뒤적이던 내겐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로그램의 영상 구성방식은 2년 동안 매년 거의 비슷했다. EBS 사이트에서 다시보기를 통하여 여러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지루할 정도로 비슷한 형식의 동영상이 많았다. 길게 한 내용을 방영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와는 다르게 <지식채널㉔>는 관련 있는 짝막한 영상을 결합하고 사진을 배치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는 긴 스토리가 짜여 있고 그 스토리에 맞춰 대상의 변화를 오랜 동안 보여주지만 <지식채널㉔>과 같은 형식의 영상은 굉장히 짝막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변화 과정을 자세하고 오랫동안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게 되고 나중에 여러 편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쉽게 프로그램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단 5분짜리 프로그램일지라도 말이다. 반복되는 일상을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것처럼 비슷한 구성으로 반복되는 영상 역시 사람들은 지루해할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은 시각과 청각이 복합되어 있는 매체다. 청각에만 의존하는 라디오와는 달리 영상매체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아무리 긴 스토리의 프로그램이라도 최소한 2시간의 방송 분량은 넘지 않는다. 녹화를 5시간을 해도 방송은 꼭 2시간 이내의 분량을 편집하여 내보내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집중 시간 과다 관련이 있다. 그만큼 시청자들은 쉽게 지루해하고 쉽게 질린다. 이들은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선택의 기회를 쥐고 있는 권력자인 셈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시청률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청자들에게 지루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느껴지는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면 아무리 5분 분량의 프로그램이라도 당시에 볼 경우에는 흥미와 집중을 유발하겠지만 이것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여러

개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5분 분량의 똑같은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되풀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영상의 기초적인 구성 방식은 바꿀 수 없었다. 시간적인 특성도 있지만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지식채널⑨>의 영상도 그 기본적인 틀이 있기에 기초적인 면은 고수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시청자들을 더 이상 질리지 않게 할 방법을 알아냈다. 바로 한정된 카테고리 로고를 좀 더 다양하게 변화 시켰다는 것과, 영상의 폰트에도 색을 입히고 폰트를 바꾸는 등 여러모로 세세하게 시각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 작은 변화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몇 개의 동영상을 연이어 보아도 전혀 질리는 감이 없었다. 이것은 내가 온라인에서 한 시간도 넘게 영상을 뒤적이며 계속 시청하면서 실제로 느낀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직접 EBS 사이트에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도 간혹 나와 비슷한 건의를 올리곤 했는데,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준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제작진들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드라마보다, 뉴스보다, 다큐멘터리보다 재미있는 5분짜리 프로그램이 정말 등장한 것이다.

<지식채널⑨>는 시각과 청각만으로 시청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만족에 신선함을 더한 ‘지식’이라는 샐러드는 시청자들이 몇 번이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다시 보게 만든 원인이었다. 새로운 지식과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태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게 했다. 특히 통계자료가 주는 놀라움은 막대한 사회적 문제를 확대가오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통계자

료와 적절한 영상이 어우러져 일종의 ‘지식 쇼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지식 쇼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도 했다. 지식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간혹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다룰 때는 제작진의 주관적인 성격으로 치우칠 때가 있기도 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져야 하는 부분이다.

객관적인 지식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한다면 지식을 전달받는 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지식을 수용한다고 해도 대개는 전달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 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지식은 엄격하게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방송분일 때는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게시판에 시청자들이 몇 회 분 방송은 주관적인 것 같다며 지식의 객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훼손한 셈이다. 그러므로 <지식채널②>는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식의 객관성을 명료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신선하고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이 올바른 사고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급부상하는 사회적 이슈에는 양면성을 지니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바른 ‘지식 쇼크’가 있어야만 시청자들의 수준도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추구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욕구다. 이러한 지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좋은 지식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을 만족시킨다면 시청자들의 수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매체는 보다 노력하여 좋은 방송, 좋은 콘텐츠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매체와 지식의 물결 속에서

보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방송, 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가는 <지식채널E>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루하기만 한 일상에서 오늘은 5분의 충격, <지식채널E>로 ‘지식
쇼크’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